

전남농기원 5대분야 연구 247억 투입

연구비 지난해보다 104억원 늘어
경쟁력 있는 종자 개발 최우선
유자·흑염소·신품종 육성 등
커피 등 아열대작물 재배기술 개발

104억원 증가한 247억원이다. 5대 중점 연구분야 203개 세부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첫손에 꼽은 중점 연구 분야는 경쟁력 있는 신 품종 육성이다. 수확량이 많고 밥맛이 좋은 벼를 비롯해 고품질 벼, 6차 산업화가 가능한 화훼 품종 개발에 나선다. 일본산 종자의 수입 대체가 가능한 양파도 신 품종을 육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품종은 전문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빅데이터와 스마트팜 분야에서는 작물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 효율화를 위한 연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작물의 재배환경·생산·유통 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인공지능을 접목한 2세대 스마트팜 기술과 농민의 일손을 줄여줄 로봇 활용 기초 기술을 연구하게 된다.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는 온난화에 따라 커피, 애플망고·바나나 등 아열대작물 재배기술 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의 '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태양광으로 전기도 생산하고 농사도 짓는 영농형 태양광 최적 모델 개발에도 나선다. 농업기술원은 전남도 특화품목으로 유자와 흑염소를 선정

하고, 산업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유자는 신 품종 육성과 기능성 가공제품 개발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흑염소는 우량계통 육성과 생산성 향상 및 정밀사양기술 개발로 신성장 축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에 역량을 모으고, 가족농도 발생량 증가에 대응한 퇴·액비 활용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농작물 생산성을 위협하는 돌발병해충 선제적 대응기술도 연구분야다. 코로나19와 고령화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축산분야에서는 전남 '옴뚱한우' 송아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보증씨수소 선발 등 체계적인 연구와 기반구축을 위해 한우육종연구센터를 신축한다. 또한, 축산냄새 저감 문제 해결, 곤충을 활용한 반려동물 기능성 사료와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에도 총력을 쏟기로 했다. 박병준 전남도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은 "5대 중점분야 연구를 통해 전남 농업인의 소득창출과 농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영농철 맞은 농촌 일손돕기 구슬땀



김병주 전남도 관광국장과 관광국 직원 50여 명이 17일 오전 나주시 왕곡면의 한 과수농가를 찾아 일손을 돕고 있다. 전남도는 본격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운 농가를 위해 오는 6월 15일까지를 보낼 농촌일손돕기 중점 기간으로 정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본청과 사업소, 시·군 모든 공직자가 1회 이상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하게 된다. 또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지연으로 농촌인력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최근 군부대와 농협 등 유관 기관에 농촌일손 돕기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 이들 기관도 동참하기로 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귀어학교 4기 19명 수료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 귀어로 인생 2막에 도전하고 싶은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어학교를 운영, 19명의 예비 귀어인을 배출했다. 과학원은 지난 14일 강진지원에서 5주간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전남 귀어학교 4기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사진> 4기 과정은 어촌 정착 초기 단계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어촌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3주간의 이론교육과 함께 현장 견학 및 선도어가에서 1주일간 실습으로 이뤄졌다. 또 창업 분야 전문 컨설팅도 했다. 이날 수료식은 코로나19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해 수료생과 해양수산과학원장을 비롯 소수의 인원만 참석했다. 행사는 교육을 기념하는 동영상 시정을 시작으로 수료증 및 공로상 수여, 교육생 대표 소감 발표, 축하 등 순서로 진행됐다. 지난해



6월 개교해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한 전남 귀어학교는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어촌생활과 어업현장을 이해하고, 수산 이론과 현장 교육을 비롯한 어업실습을 경험하도록 귀어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총 3회 교육과정을 운영한 결과, 3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지난 1월 귀어 정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수료생 중 20명이 다른 시·도에서 전남으로 귀어하는 성과를 거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도우미 지원

전문가 41명 채용 55개 공동체 지원

전남도가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체계적 어업관리를 위해 올해 어업관리 전문가 41명을 채용해 55개 공동체에 지원한다. 자율관리어업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과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해 어업인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규약을 제정해 수산자원을 보전·관리하는 어업이다. 정부가 2001년 도입했다. 어업 종사자가 노령화하고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산업 특성상 자체 관리가 어렵다는 현실에 공감, 전남도는 2017년부터 자립 의지가 높은 공동체를 대상으로 어업 전문 도우미를 공개 채용하도록 지원했다. 도우미는 수산 분야 경력자로 공동체의 주요 활동 및 규약 관리, 회원 참여 유도, 회계 관리 등은

영을 원활하게 이끌어 자체 역량을 배양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어촌체험 프로그램 및 브랜드 개발 등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돕는다. 공동체의 생산 기반을 지원하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지원 공동체가 2020년 11개소에서 올해 27개소로 2배 이상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최정기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가 바다를 가꾸는 일은 정부 주도의 자원관리보다 효과가 클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업 전문 도우미 채용을 지원해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활력있는 어촌 조성을 견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은 자율관리어업공동체 289개에 1만722명의 어업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1133개에, 6만4893명이 활동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공공저작물 개방 활용지원 전국 최우수

전남도가 도민이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산업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저작물을 개방하는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21년 정부합동평가 '공공저작물 개방 및 활용지원' 분야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정부합동평가는 전국 시·도의 연간 추진성과를 중앙정부가 합동으로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종합평가다. 학계와 민간 전문가도 참여해 시·도 간 상호검

증 등을 통해 엄격히 실시한다. 전남도의 공공저작물 개방 및 활용지원 우수사례는 '전남도 브랜드 상표출원 등록을 통한 상품 판매', '전남 지역자원 기반 캐릭터 발굴 및 상품 제작', '전남 관광 사진 개방', '전용서체 개발 및 보급'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공저작물 개방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우수사례는 아마존 전라남도 브랜드관을 개설해 미국 특허청에 상표출원, 지역 캐릭터 총 7

종을 발굴해 관광기념품, 마스크 스티커, 강진책방 판매, 식당 메뉴판에 활용 등이다. 전남도는 또 매년 공공저작물 개방 및 활용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해 도, 시·군 담당자 교육 및 도내 공공저작물 전수조사를 통해 질 높은 저작물을 발굴하고 개방하고 있다. 조영식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도민이 누릴 다양한 공공저작물 개방 및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며 "온택트 시대에 걸맞은 공공저작물 활용 및 전남도만의 특색있는 공공저작물을 발굴해 개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캠페인·할인행사...전남도 국산김치 소비촉진

전남도가 전국 첫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추진한데 이어 국산김치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17일부터 본격 추진에 나섰다. 최근 중국산 김치 '알몸 절임' 동영상 파문으로 국산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남도가 세계 최고 품질의 전남산 김치를 알리고 소비 촉진에 앞장서기로 했다. 국산김치 소비촉진 대책은 17일부터 7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주요 추진 내용은 ▲도와 시·군, 농협, 외식업협회,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하는 '국산김치 소비촉진 캠페인' ▲남도장터 이용 쿠폰(5000원)을 지급하는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지정업소 이용 인증 이벤트' ▲100% 국산원료 전남김치 할인행사 등이다.

이와 함께 시장, 먹거리 골목 등 특정 지역에 위치한 음식점 전체가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을 받으면 '국산김치 안심밥상 거리'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장과 유명인사 등이 참여하는 '국산김치 소비촉진 릴레이 챌린지' 등도 함께 펼친다. 전남도는 도 산하기관과 전남도교육청, 전남지방경찰청, 농협중앙회전남지역본부 등을 비롯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위치한 15개 공공기관의 구내식당도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지정을 신청하도록 할 방침이다. 강종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국산김치 소비촉진 대책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산 김치 소비문화를 정착하겠다"며 "대한민국 김치의 본고장 전남에서 생산한 안심 김치를 많이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돈돈한 지키자 국민건강!
실손의료보험!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